

## 치 사

**제7회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자와  
출판사 그리고 올해의 불서에 선정되신  
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**

**널리 알려져 있듯이, ‘사람은 책을  
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’고 합니다.  
한 걸음 더 나아가면 ‘사람은 사회를  
만들고 사회는 사람을 만든다’고 합니다.**

**책을 통해 우리는 보다 더 지혜롭게  
자신안에 담긴 본성을 찾아갈 수**

**있습니다. 그 본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 
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바로  
불국토일 것입니다.**

**제7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과  
올해의 불서 10(텐) 선정을 축하하는  
자리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,  
출판인 특히 우리 불교출판인들의  
사회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 
강조하고자 함입니다.**

**불교출판은 불교를 직접 언급한  
도서만이 아니라 그 책을 읽는 사람과**

**사회의 정신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책들 모두를 말합니다.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45개 출판사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불교출판문화상의 전 분야에서 뛰어난 도서들을 출판한 이들과 출판사들이 모두 포함되고, 또한 그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문호를 넓혔으면 합니다.**

**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지금도 출판사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**

**전달하고자 하는 출판인들이 있기에 불교출판은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.**

**개인적으로도 총무원장으로 취임 이후, 명절 등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불교와 관련된 양서들을 선물해 왔습니다. 그 이유는 각계의 명사들을 비롯하여 불교계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좋은 불서(佛書)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러한 활동이 불교 출판계의 역할을 확대하는데도 일조를 하리라 보여집니다.**

**사람의 본성을 찾는 길잡이가 되고  
아름다운 사회, 더불어 사는 사회를  
만드는 지남철 역할을 하는 불교출판이  
되기를 당부드립니다.**

**오늘 그 지남철 역할에 앞장서신  
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를  
드리며, 더욱 분발해서 더 나은 도서  
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**

**끝으로 불교출판문화상이 성성할 수  
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불교출판  
문화협회 지홍스님 이하 불교출판  
관계자들과 총무원 문화부의 노고에**

**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. 바쁘신  
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사부대중  
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**

**불기2554년 11월 30일  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**